

철현금 선을 더하니 더 그윽한 가야금 울림

표윤미 가야금 독주회 '현을 어루만지어'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

단가 '광대라 함은' 국악가요 '꽃의 의미' 초연도

가야금 연주자 표윤미(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원)씨는 욕심이 많다.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전통 연주와 함께 늘 새로운 시도를 한다. 독주회 무대로는 드물게 국악관현악단 협연으로 '수궁가'를 선보인 것도 그 중 하나다.

오는 9월 7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 3에서 열리는 다섯 번째 독주회 '현(絃)을 어루만지어' 역시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공연이다.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그녀는 몇년 전부터 철현금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생소한 철현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8호 줄타기 명인인 고(故)김영철 선생이 하와이안 기타와 거문고를 합쳐 고안한 개량악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철현금과 거문고가 어우러진 '김영철류 철현금 산조합주'를 들려준다. 또 무안출신으로 부산시 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된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합주'도 선사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두 곡의 초연곡이 관객을 만난다. 첫번째 곡은 임교민씨가 작곡한 단가 '광대라 함은'이다.

"판소리를 하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 단가를 꼭 부르고는 해요. 기존 단가가 느린 중머리 장단이 중심이라면 이번에 선보이는 곡은 자진모리와 중중모리 등 빠른 장단으로 바꾸고 현대적 화성도 가미했어요. 가사는 신재효 선생이 지은 '광대'가 가사를 재구성했습니다. '광대'가 가사가 국악하는 이들에게는 외갓거든요."

역시 임교민씨가 작곡한 국악 가요 '꽃의 의미'도 첫 선을 보인다. 아름다운 우리 시를 모티브로 한 국악 창작가요를 부르고 싶었던 표씨는 시집을 뒤적이며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 마음을 빼앗겨 곡을 부탁했다.

마지막 곡은 표씨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가야금병창 '박귀희씨 심청가'다. '화초타령', '심봉사 맹인 잔치 가는 대목' 등 판소리 '심청가'의 눈대목을 표씨의 창과 가야금 연주, 아쟁, 대금, 장단이 어우러진 연주로 듣는다.

그밖에 (주)하늘다래예술단이 잔조 출연, 사물놀이 '새로운 꿈을 향한 신바람'을 연주한다.

전남도립국악단 류장영 예술감독이 사회를 맡은 이번 공연에는 국립민속국악단원인 황상현·김효신·구주영씨와 김성용(전남도립국악단원), 김화숙(무안군립국악원), 이선진·한아름·박해민·김소정·김호빈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광주에고와 목원대 한국음악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표씨는 2002년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일반부 가야금 병창 부문 장원을 수상한 후 지난해 제24회 명갈해남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명인부 종합 대상)을 수상했다. 정철호·조동달·문명자·안숙선 선생 등을 사사했다. 문의 010-8913-781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쇼스타코비치와 모차르트를 만나다

내달 2일 광주문화회관 광주시향 정기공연

광주시향 정기공연이 오는 9월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 광주시향은 18세기와 20세기를 각각 대표하는 작곡가인 모차르트와 쇼스타코비치의 대표작을 무대에 올린다.

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최희준씨가 지휘봉을 잡은 이번 무대의 첫번째

연주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협주곡 30번'이다.

협연자는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김태형이다. 김씨는 2004년 21회 포르투 콘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와 베토벤 특별상을 함께 수상하며 국제 음악계에 처음 이름을 알렸다.

2013년에는 영국 헤이스팅스 피아노 협주곡 콘쿠르에서 우승과 동시에 정중상을



최희준

김태형

수상했다. 마지막 곡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0번'이다.

티켓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2제

과학기술과 인간의 가치

11월 13일까지 한국·대만현대미술전

2016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비엔날레 전시관과 이웃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 기념 전시가 열려 볼거리를 풍성하게 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이 11월13일까지 한국·대만현대미술전 'Life in Between Delight and Discomfort'(기쁨과 불편함 사이에서의 삶)을 개최한다. 타이페이시립미술관, 광주문화재단과 공동주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작가 8명, 대만 8명(9명)이 참여해 영상, 설치, 회화 등 22점을 선보인다. 전시주제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변하는 인간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시장을 들어가면 대만 시에치에화, 통이팬 작가가 작업한 '당신은 안무가입니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관람객들이 헤드셋을 끼고 지시에 따라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기계가 어찌지 못하는 인간 존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전북 정을 출신으로 대만 관두미술관장으로 재직 중인 추태이 작가는 추상화 '대상을 가진 형태', '변주' 등을 출품했다. 서로 다른 색으로 반듯하게 분할한 캔버스는 이성을, 그 위에 자유롭게 뿌리고 문지른 물감은 감성을 나타낸다.

아트그룹 '릭서리 로지코'는 대만 어린이 3만7200명이 꿈을 그린 그림을 대형 스크린으로 연속해서 보여준다.

그밖에 광주 박상화 작가는 실크스크린에 무등산과 담양 가



김명범 작 '무제'

사문학관 영상을 투사한 '무등판타지아'를 통해 삶의 여유를 전해준다. 신호운 작가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 사람 얼굴 형상 안에 부처상을 배치해, 스마트폰 등 가상세계에 빠져사는 현대인들을 표현했다.

전시 개막식은 31일 오후 5시 미술관 로비에서 열리며 김광철 작가가 라이브 퍼포먼스, 주민정씨가 팝핀댄스 공연을 펼친다. 문의 062-613-71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을 묻다

11월 6일까지 재독 작가 '정영창' 전

광주시립미술관 3전시실을 들어서면 이마에 총알 구멍이 난 해골 그림을 뒤흔뜨리게 된다. 이 작품을 그린 정영창(59) 작가는 "전쟁과 폭력의 광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골 모습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분관 3, 4, 6전시실에서 11월6일까지 '정영창'전을 연다. 비엔날레 기간 평화, 인권, 자유를 작품에 담은 정 작가를 광주에 소개하며 광주정신을 이야기한다.

목포 출신인 정씨는 지난 1983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이래 30년간 뒤셀도르프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달콤한 이슬 1980 그 후'에 참여하며 한국에 처음 소개됐다.

30일 미술관에서 만난 정 작가는 "이번 전시는 '생과 사'를 주제로 준비했다"며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작품들은 모두 검은색 배경이 눈길을 끈다. 정 작가는 먹과 아크릴물감을 섞어 발효시킨 후 캔버스에 칠하는 방법으로 어둠을 표현하고 있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흑과 백은 동양 정신 세계와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된 서양 세계관을 표현한다.

"대부분 얼굴 초상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검은색은 우리가 왔던 곳을 의미합니다. '생과 사'가 존재된 곳이지요."

'덕혜옹주'도 작품에 등장한다. 영화가 개봉되기 4년 전에 완성한 작품이다. 정씨는 "무표정한 덕혜옹주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한국인 아픔을 관람객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체르노빌부터 후쿠시마, 카미카제부터 드론, 죽어가는 사람부터 아름다운 인체까지 예술을 통해



정영창 작가가 작품 '덕혜옹주'를 설명하고 있다.

인류 평화를 호소하고 있다.

정 작가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동양 감성이 만들어졌고 독일에서 작업하며 서양 세계관을 배웠다"며 "이번 전시작들은 인간 아름다움과 고귀함, 야만성과 잔혹함을 기록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 본질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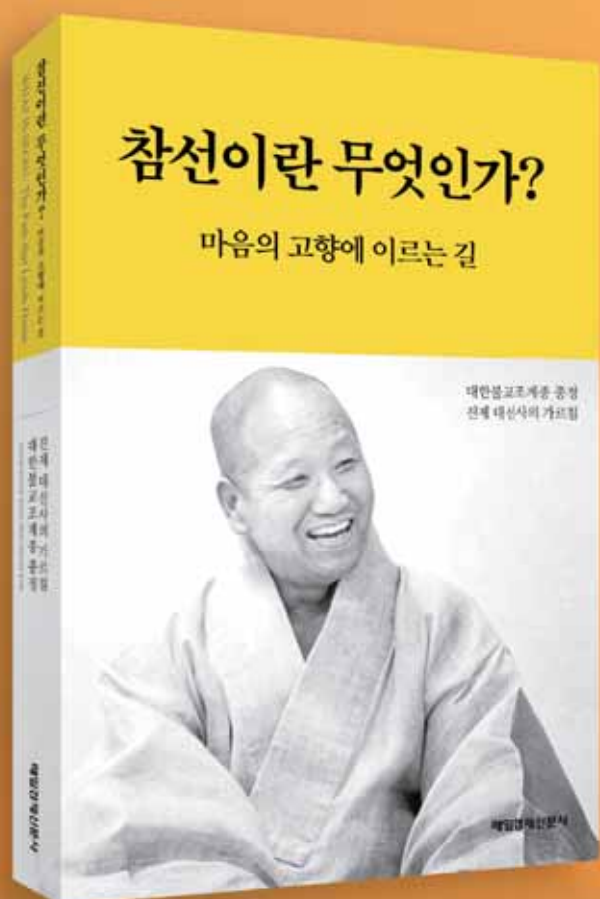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http://jinhan-shona.blog.me>

박물관 시낭송콘서트 금남로 연가

◆일시 | 2016년 8월 31일 오후6시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운영위원회 ◆주관 | 서구문화원 다솜 시낭송회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가 한글과 영문으로 전하는 삶의 지혜와 참된 행복의 메시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기 때문이요,
말이 여위면 털이 깊이로다.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합시다.”

“이 책은 오늘 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소중한 양식을 부담 없이 얻을 양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진제대선사는 황국대선사로부터 부처님법을 인가받아 경허-혜월-운봉-항국대선사로 전해 내려온 정통법맥을 이음. 석가여래부촉법 제79대법손.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지음 | 진제 대선사 가격 | 16,000원 팔공총림 동화사 | 053)980-7903 해운정사 | 051)746-2256